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1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와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대상물타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싸움준비를 위한 전투정치훈련을

통하여 다지고다져온 천백배의 보복 열기로 일단 유사시에 제살구멍부터 찾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피뢰군 상층부것들을 사정없이 제거해버리고야말 부대장병들의 굳은 결의를 보고올리였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므로써 적들의 《예방전쟁》, 《선제타격》기도를 우리 식

의 정의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목사발만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후승리의 보고를 제임먼저 올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기세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받들고 전투조직과 훈련지휘를 현실성있게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대상물타격경기에서 잘되였다고 보는것은 훈련에서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훈련이 다양화, 다각화된것이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부대의 장병들이 훈련의 질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넣고 병종, 전문병훈련과 협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군종,

병종간 협동을 완성하는 실전훈련들을 많이 조직진행하여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공간과 전투양상에도 대비할수 있게 전투력을 비상이 높여나감으로써 일단 공격명령이 내려면 원수들이 등지를 들고있는 침략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